

2014년 8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8.21(목) 15:30~17:0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 8월 14일 4년반 동안 서울 기초 수급자 202명 목숨 끊어 내용에서 서울시 기초 수급자수는 매년 20만명 선에서 큰 변동이 없지만 자살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4.9명에서 지난해 28.1명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자살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기초수급자 문제점 등을 심층취재해서 보도하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8월 4일 뉴스1번지 17세 여중생 잔혹 살해 사건, 윤일병 폭력 구타 사망 사건을 통해서 경쟁교육 등 공교육의 문제,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와 약자를 짓밟는 행위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돌아봄은 좋았음.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지적은 이미 여러 곳에서 있어왔기 때문에 상기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해 보였음. 잔혹범죄와 약자 피해 사례를 좀 더 다양하게 짚어보고 각 계층과 단위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 있음(성낙용 위원)
- 군대내 불거지는 관심사병의 문제는 이미 여러 매체에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나열식은 다소 식상했으며 좀 더 전문적인 지적과 대책 등을 정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듯 했음(성낙용 위원)
- 8월 17일 비즈톡톡 워터파크의 무한진화 내용에서 휴가철에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소개. 워터파크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20곳이 운영 중이라고 소개함. 이중 웅진플레이도시와 '포'리조트 워터파크를 집적 체험하면서 소개하였는데 좀 더 폭넓은 안내가 필요했음.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물놀이 시설마다 즐길 수 있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용 가격대는 어떤지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소개해 주었으면 정보 가치를 더해 유익한 내용이 되었을 듯함(성낙용 위원)
- 8월 18일 의경지원률이 높아진다는 보도에서 약간 인관계의 오류가 아닌가 함 의경지원률이 높아진 것은 과거 집회시위를 막기위해 상당히 힘든 일이었음. 8~90년대 시위가 많아 근무환경이 좋지 않았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아져 높아지지 않았나 싶으나 내부환경이 좋아져 높아진것으로만 나와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함(이용우 위원)
- 가격안정화 기사는 사실 많이 나왔으면 함. 농업분야와 중소기업에는 많은 매체

- 에서 어렵다고 지원해야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해서 농민들과 중소기업들이 참고했으면 함(이용우 위원)
- 8월 5일 뉴스 중 식품 과대포장에 대한 기사 가운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과대포장에 대하여 리포트하면서 삼양사 CI를 방송화면에 노출하였음. 삼양식품과 삼양사는 다른 회사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 뉴스에의 CI 노출은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확인 후에 방송하는 노력이 요구됨(김연화 부위원장)
 - 8월6일자 『김연아 '남친' 무단으로 마사지 받고 오다가 교통사고 당해』 피겨스케이팅 스타 김연아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 병장 등 3명이 야간에 무단으로 마사지업소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보도에서 군복무 이탈행동이나 체육특기병 문제점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막으로까지 사건과 무관한 김연아씨를 보도한 것은 김연아씨의 인격권을 침해 한 것으로 부적절함(김용주 위원)
 - 8월10일자 여탕 5분 훔쳐봤다 '징역4월 내용에서 여탕사우나를 5분동안 훔쳐본 성범죄 전과자에게 징역4월 선고 보도에서 자막에 5분 표시는 시청자들에게 판결내용을 잘못 오인 할 수도 있음(김용주 위원)
 - 8월15일 뉴스 롯데 신세계 몸집 키우기 내용에서 유통업체들의 매장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또는 국민들에게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음. 첫째는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강남상권 개발인데 재래시장고객이 경쟁기사가 어느 일방의 입장 등을 말하게 되지 않고 양측 입장을 반영해야함(이용우 위원)
 - 한전부지관련 전망부분에서 정작 각축을 부른다는 주체들의 멘트는 없이 추정만으로 추측성 기사내용이었음 주체들에 대해서 입장확인을 거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임(이용우 위원)
 - 8월 4일 뉴스1번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내용에서 요즘 들어 각종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수사' 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 하는데, 과학수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풀이해주는 심층적인 해설이나 패널토론이 드물다고 느껴짐. 뉴스 전문 채널인 만큼 추측성 보도를 지양하고 사실적 판단과 해설이 가능한 과학기술인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대부분 뉴스·시사프로그램의 패널로 초청된 인사들이 반복, 한정적이며 때로는 크게 관련 없는 인물이 관계자로 출연하기도 함(에볼라 바이러스 보도를 시사평론가와 해석 등) 이런 보도는 뉴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청자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이헌규 위원)
 - 석촌 싱크홀과 관련한 '싱크홀에 이어 동공 발견... 이러다 지반붕괴까지?, 서울 시내 도로밑 구멍송송... 시민들은 불안, 건물 차량 집어삼켜... 외국 싱크홀 사례 등 3개 뉴스는 지반붕괴 등 최악의 상황을 추측성으로 언급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특히 외국 싱크홀 사례는 대형사고 위주의 단순 전달

보도로써 불안감 조성 우려됨.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원인 분석과 대책 등을 다루는 전문가 대담 등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이현규 위원)

▲ 화면구성 및 부적합 표현, 자막 등 개선필요

- 석촌 지하도에 또 다른 동공발견이라고 헤드라인에 나왔는데 기사는 안 나왔음
광고 후에서야 기사가 나왔는데 헤드라인의 배열과 실제 기사의 내용 배열의
순서가 맞지 않음(강대인 위원장)
- 8월 18일 뉴스1번지군, 인사참모부장 징계위 회부 관련 소식 : 육군 인사참모부
장 인사와 관련하여 하루 만에 반복하고 바뀐 소식과 관련하여 배경화면으로
국방부로 보이는 건물 일부와 창문을 보여주고 군 관계자들이 인사하는 장면들
을 흐릿하게 노이즈 처리해서 내보냈는데 답답하고 무의미해 보였음. 배경화면
처리 신중을 요함(성낙용 위원)
- 8월 7일 뉴스1번지 김정 앵커 화면은 앵커가 왼편에서 오른쪽을 보고 말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불안한 화면을 보여 줌. 스튜디오 안의 스케치 역시 자주 이
용되면서 다른 카메라의 모습과 역할을 하지 않는 다른 앵커의 모습을 담고 있
음. 기존 영상 문법을 지키지 않는 화면의 경우 이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양승찬 위원)
- 8월 11일 4시 뉴스 속보 자막에서는 '유병언 가방 외화는 없었다'라고 제시되었
으나 함께 제공된 화면에서는 수사관이 외화를 보여주면서 금액을 세고 있는
부분이 등장함. 속보 과정임을 감안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막과 일치하는 화면
을 쓰는 것에 주의할 필요(양승찬 위원)
- 윤 일병 부검 과정에서의 시신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는 했지만 너무 반복
해서 많이 제공함. 8월 12일 휴가 장병 자살 사건 보도에서도 과학 수사대가
포대에 시신을 담아 옮기는 장면을 하루 종일 반복함. 다음날 오전까지 자료 화
면으로 활용함. 시신 또는 시신 운구 장면에서 망자 인권과 망자 가족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주의할 필요 있음(양승찬 위원)
- 광화문 시복식 뉴스를 내보내면서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표기. 우선 우리나라
표준말은 하느님이고 하나님은 개신교에서만 쓰는 용어. 특정 종교 행사에는
그에 맞는 용어를 쓰는 것이 관례이고 바람직하다고 봄. 용어를 바르게 쓰는
노력이 필요함(김연화 부위원장)
- 오른쪽 상단의 뉴스와이 고정자막이 아무 예고 없이 연합뉴스TV로 바뀌어 혼란
스러움을 야기하고 세월호 참사 태풍에 수색 선박(선박) 피항, 광화문 시복식
뉴스 하나님(하느님), 석촌 싱크홀 관련 뉴스에 실드공법과 실드공법 혼용 표기
오가 있었음(이현규 위원)
- 8월 6일(수) 아침 뉴스에서 "신임 경찰청장 내정"이라는 방송을 하는데 <연합뉴
스 실시간 주요 뉴스>에서는 "신임 경찰청장 유력 검토"라고 자막이 나와 혼란
을 야기했고 8월 14일(목) 오전 8시 뉴스에서 <연합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에

서는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한국을 방문하는 교황을 “내일 방문한다”는 오보를 내보냈음(최현철 위원)

- 8월 16일(토) 오전 9시경 광화문에서 있는 교황 시복식 중계에서 교황이 카퍼레이드를 할 때 수화 방송을 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 다른 채널(YTN이나 TV조선, 채널A, MBN 등)에서는 수화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화 화면을 왼쪽에 배치하고, 좀 컸다고 생각한다(최현철 위원)
-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음 동공과 싱크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음. 자막으로 동공은 무엇이고 싱크홀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 여전히 일반 시청자가 동공과 싱크홀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으며 동공이라는 표현이 건설업계에서 쓰는 것인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동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지하의 빈공간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기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음. 어려운 단어나 표현은 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강대인 위원장)
- 실시간 뉴스 스크롤에 대해서 불필요한 한자의 사용이 많음. 예를 들어 사람의 성씨, 나라, 여당야당등 한글로 써도 되는 것을 꼭 한자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과 달리 한자의 사용이 없고 한자로써야만 의미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한 번 짚어주었으면 함(강대인 위원장)
- 공무원이 무서워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관련 보도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을 위시한 공무원사회 반발...”이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단체만을 예시하여 폄하가 우려됨(이현규 위원)

▲ 대담토론 진행, 출연자 등 개선필요

- 8월 3일 신율의 정정당당 ‘유병언 왕국의 몰락’이란 주제로 집중대담 진행시 진행자인 신율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등 5분들을 나열하듯 소개하여 시청자 입장에서는 패널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음. 패널들 한분 한분 소개시 화면 전환이 필요해 보였음. 또한 패널 멘트시 소개자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나 자료화면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패널의 소개자막이 계속 나오고 있었음. 이는 시청자에 대한 과잉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음(성낙용 위원)
- 8월 9일 대담 프로그램 출연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패널 참석 윤일병 사망 관련 가해자들 살인죄 적용해야? / 탈영병 군용트럭 도주/ 포천 엽기살인 수사 일단락 의문은 여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대담 전에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안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듯했음(성낙용 위원)
- 8월 17일 뉴스Y 15 대담 프로그램 : 백성문 변호사 패널 참석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의 군대내 후임병 폭행사건/ 제주지검장 공연 음란죄 관련/ 유병언 사건 미궁 속으로 단서도 무용지물 등 이슈가 되는 사건과 문제들을 짚어봄.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법적, 사회적인 사안들을 다각적인 면에서 짚어봐야 하는 것들

인데 패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에 치중하는 것은 방송의 다양성과 신뢰성, 공정성의 측면에서 다소 적절치 못했든 것으로 보였음(성낙용 위원)

- 8월 18일 뉴스1번지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의 입장/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 특별법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이 참여하여 10분 넘게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패널들의 중복되는 발언들도 있어 어수선했음. 대담 말미에 앵커의 정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듯했음(성낙용 위원)
- 7.30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 분석 프로그램은 이미 타방송 뿐만 아니라 뉴스Y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거 뒷담화 수준의 프로그램을 한 코너를 할애에 방송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의문스러웠음. 또한 패널로 참석한 박찬종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시종일관 반말에 가까운 투로 너무도 주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여야 정치인을 거명할 때 비록 정치 후배라 할지라도 현재 각 당의 당직명이 있음에도 누구누구를 거명하며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며 마치 개그프로그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몹시 당혹스러웠음. 향후 품격을 잃은 프로그램은 더 이상 방송되지 않기를 바람(이용진 위원)
- 뉴스 1번지에 출연하는 정치평론가의 역할을 보면 우리 사회 모든 이슈에 대해 평가, 진단하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출연하는 전문가가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것이 제작에 편리할 수 있겠지만 영역별로 조금 더 구분하여 전문가 대담을 했으면 좋겠음. 정치평론가들이 유대균 검거 당시 CCTV 자료 화면을 두고 세월호 관련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전문성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함(양승찬 위원)

▲ 프로그램편성 및 기획의견

- 각기 다른 시간대의 뉴스 간의 차별성이 부족함. 시청자의 입장에서 계속 같은 뉴스만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기분. 같은 소스를 가지고도 더욱 심도 있는 보도나 다양한 시각의 보도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특히 계속 같은 뉴스보도 형식의 프로그램의 나열은 시청자에게 지루한 인상을 줄 수 있음(김연화 부위원장)
- 오전 시간대의 뉴스 편성에의 문제점이 있음. 주중 8:30부터 시작하는 '글로벌 Y'는 글로벌 뉴스만을 다루지만 그 시간은 주로 출근 전 직장인들이 잠깐씩 짬을 내어 그날의 국내 헤드라인을 체크하는 시간이므로 적절한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됨. 동 시간대의 경쟁채널로 채널이 전환되는 부정적 효과 발생함(김연화 부위원장)
- 10월 초 노벨상 선정 발표와 관련하여 사전 기획 보도 의견임(예시 : 노벨상과 기초과학 등)(이헌규 위원)
- 최근 뉴스에 변호사의 출연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일반인에 비해 법조인은 막말을 자제하고 비교적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며, 법적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이

슈를 쉽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다는 평을 듣고 있음. 그런 점에서 법조인이 출연해서 법률문제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해 보는 것도 좋다는 의견임 (최진녕 위원)

▲ 긍정적인 평가, 앵커 및 리포트 관련 의견

- 8월 21일 새벽 이슈토크에서 출연자의 어법등 발언이 경륜이 느껴져 명쾌했음, 또한 박교수 롯데 관련 동공문제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로서 잘 정리해주었음 (강대인 위원장)
- 뉴스리뷰 내용 중 시청자와 직접 만나는 시간이 포함 된 것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김연화 부위원장)
- 8월14일자 뉴스초점 에볼라 출혈열 감염 자각 증세는? 이재갑 교수(한림대 감염내과)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에볼라 감염 경로, 확산속도, 증상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에볼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보도임(김용주 위원)
- 8월 4일 뉴스1번지 이동형의 줌인 '잔혹범죄와 바이러스 습격' : 서아프리카에서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국내에서 벌어지는 잔혹범죄를 분석해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인류의 개발주의를 반성하며 짚어보았고, 서아프리카의 미신에 의해 급속하게 확산이 된다는 내용 등은 시청자에게 바이러스의 습격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봄(성낙용 위원)
- 변리사가 변호사보다 소득 높다는 내용은 착시임. 변리사는 팀소득이고 변호사는 개인소득인 것으로 가벼운 분석이지만 이러한 분석이 들어가는 내용은 유익했음(이용우 위원)
- 8월 19일(화) 19:30 '북한은 오늘' 프로그램 중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에서 보내온 '김정은 조화' 문제를 다루면서 남북관계가 미묘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일방적이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끌여가는 품격을 보여줘 매우 좋았음. 특히 패널로 참석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두 명 모두 차분하게 그리고 객관적 시각에서 진행해 주어서 매우 좋았음(이용진 위원)
- 8월 14일 지방시대 지역소식이나 현황을 알려주는 뉴스는 현지 방송에만 한정적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마련된 코너라는 것이 돋보임. 다양한 지역권별(대전, 부산, 광주) 소식을 지역신문 주요뉴스를 통해 알아본다는 기획의도 또한 좋게 평가 됨. 지역 뉴스나 소식은 주요보도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보도되기 힘든 구조인데 이런 코너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됨(이현규 위원)
- 저녁 시간대의 아나운서 및 리포터의 의상이 너무 화려합니다. 과도하게 화려한

의상은 시청자의 이목을 그 쪽으로만 집중시켜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을 해할 수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합니다(김연화 부위원장)

6) 교황 방문보도 의견

- 8월 18일 뉴스1번지 교황 방한 소식을 4~5꼭지 연속보도 후 바로 국회 소식을 전하여 당황스러움. “다음은 국회 소식입니다” 라는 등의 안내 멘트 후에 진행 하면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하는 아쉬움이 있음(성낙용 위원)
- 8월 18일 뉴스Y 교황 방한 마지막 날 일정으로 진행된 명동성당 미사 집전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은 좋았으나 미사가 이뤄지는 내 내 아나운싱이 계속되어 집중이 어려웠음. 교황의 말씀이 바로 통역되어 전달되어 지기 때문에 생중계 시에는 자막만으로 내용을 표기해도 충분해 보였음. 특히 종교의식을 전달하는 중계방송이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스포츠중계처럼 해설이 계속 들리는 것보다 경건한 분위기로 방영하고 자막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 사료됨(이헌규 위원)
- 뉴스와이 9에서 왜 미디어톡톡을 하는 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음. 미디어톡톡에서는 2~3개 신문사의 주요 기사를 보여주고, 패널 2명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하는 포맷이인데 문제는 여기서 언급되는 신문 기사가 엄청난 뉴스도 아니고, 보도전문채널인 뉴스와이가 전하지 못하는 뉴스도 아닌데 단편적으로 신문 기사를 보여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등장하는 패널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음(최현철 위원)
- 교황이 지닌 상징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교황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문제는 교황 관련 뉴스가 교황이나 교황을 상당히 미화하고 있다는 것임. 교황이 말씀한 주요 개념은 “평화와 화해, 치유”인데, 이 개념들이 우리 사회에는 없었던, 처음으로 듣는 것인 양 보도하고 있고, 꽃동네 방문에서 교황이 장애우를 대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음. 아쉬운 것은 교황의 방문 뉴스에 더하여 오랫동안 장애우를 돌보는 다수의 신부와 수녀들의 뉴스도 전했으면 하는 점임(최현철 위원)

▲ 기타 의견

- 뉴스와이를 인터넷에서 볼 때 편성표 찾기가 힘들. 편성표를 시청자의 눈에 잘 띄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김연화 부위원장)
- 7월 28일 자정 뉴스특보는 유병언 관련 의혹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바뀔 때 마다 폭발음 같은 음향효과로 뉴스를 자극적으로 전달함. 뉴스 전달에서 효과는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 (끝)